



“명실상부한 고교 최강 가리자”

■ 제15회 무등기 고교야구 출전 22개팀 프로필

광주일보사가 고교야구 활성화를 위해 1994년 창설, 올해로 15 회째를 맞는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오는 9~16일까지 8일 동안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펼쳐진다.

무등기는 ‘광주일고 3인방’ 김병현, 서재용, 최희섭 등 해마다 스타급 선수를 배출하면서 광주 야구의 상징이자, 한국 야구의 자 리를 과시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 상원고의 김민석이 고교야구 통산 15번째이 자 대회 첫 노히트 노런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무등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회도 한국 야구사에 남을 명실상부의 장이자 고교야구 셋별들이 자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무등기 정상을 노리고 있는 전국 22개 참가팀의 프로필 과 팀 전력을 살펴본다.

1905년 창단 국내 최초의 야구팀



1905년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을 창단 한 경기고는 60년대 후반 야구단이 해체되 었다가 1976년에 재창단했다. 2000년 황금 사자기 우승, 2002년 황금사자기 4강, 2005 년 봉황기 3위, 2006년 대통령배 3위 등 화려한 전적으로 야구 명문의 긍지를 되찾고 있는 경기고는 올 대통령배 준우승 한을 이 번 대회 우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경기고

▲대표 = 장기동 ▲감독 = 강길용 ▲선수 = 이준평, 노민호, 강병현, 오한세, 임경도, 백승홍, 이창성, 김병윤, 윤수호, 신우호, 조우형, 박두현, 이승규, 김민준, 오윤석, 정명규, 김동문, 박동현, 오지환, 이성근, 조운성, 이남 용, 고지원, 홍창환, 장현수

야구 전용구장서 훈련...사기충천



세광고

1954년 창단된 세광고는 1990년 학교 이 전과 함께 야구 전용구장을 갖추고 전국대 회 4회 우승과 더불어 최근 2000년 전국체 육대회 준우승과 대붕기 3위, 2002년 대붕 기 준우승, 2007년 광주전국체전 동메달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발 빠른 선수가 많아 기동력이 좋다. ▲대표 = 김사용 ▲감독 = 민문식 ▲선수 = 문병승, 임한규, 조경우, 우병길, 김민진, 김선기, 이상중, 오석근, 육진성, 김태규, 남승현, 남광현, 오수영, 송선근, 박경민, 최승규, 김두열, 박인동, 박노용, 김재균, 이민준, 박건우, 김성택, 박도원, 이재진, 임재광, 이정현, 한승엽, 정진태

이건열 前 KIA코치, 사령탑 맡아



화순고

지난 2002년 3월 창단된 화순고 야구부는 2004년 미추홀기 준우승, 2006년 대통령 배 4강, 무등기 8강, 2007년 미추홀기 준우 승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 해 1월 기아타이거즈 코치로 활동하던 이 건열 감독이 부임한 화순고는 컨디션이 좋고 배짱과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투수 안우주 를 내세워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자 = 차완기 ▲감독 = 이건열 ▲선수 = 구경태, 김선현, 심정 보, 윤민호, 이수빈, 정진기, 황성연, 홍건희, 김태호, 신진호, 정대용, 서 우현, 김재욱, 신민식, 신성호, 안우주, 유휘봉, 정태성, 최성락, 최진선

클럽업 트리오 파워 돋보여



강릉고

1975년 3월 창단한 강릉고는 지난해 62 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두는 등 짧은 야구 역사에도 강원 영동지 역의 명문학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자리 잡았다. 클럽업 트리오의 파워, 안정된 수비 와 팀워크가 돋보인다. ▲대표 = 함영세 ▲감독 = 함학수 ▲선 수 = 문순택, 박상준, 배강호, 배재훈, 김용 지, 김영국, 정인하, 박정현, 백강기, 안도근, 최종현, 강하늘, 신명철, 윤승환, 김승규, 김성일, 정운채, 김석현, 조성일, 김규태, 김승현, 김 진영, 박재현, 윤승환, 손후락, 강성만, 최영순, 최희원, 홍영진

막강 마운드...무등기 5번째 우승 도전



광주제일고

1923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에서 22차례 나 우승을 차지했다. 올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제일고는 정성철·장민제의 원투펀치 등 막강한 투수력을 보유하고 있다. 탄탄한 내 야 수비와 조영선·김태형·손병기 중심타선 을 바탕으로 무등기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대표자 = 한종관 ▲감독 = 허세환 ▲선수 = 김태형, 장민제, 정성철, 양영웅, 박국남, 손 명기, 조영선, 정승인, 허경민, 최형석, 윤민식, 김인성, 심동섭, 박세도, 이주 호, 강민규, 김주덕, 강백산, 이기상, 손준혁, 이정호, 유창식, 서흥규, 김요 션, 이석주, 허일, 백영준, 백세웅, 임영철, 손수기

짜임새 있는 수비 타의 추종 불허



부산공고

1955년 창단한 후 한 차례 해체됐던 부산 공고는 1981년 재창단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1년 황금사자기 3위, 2006년 무등기 3위, 2007년 청룡기 3위 등의 성적 을 거두고 있다. 2학년이 이끄는 짜임새 있 는 내야 수비진과 3학년 한성현·권재경·박 진권이 이끄는 중심 타선의 폭발력이 장점 이다. ▲대표 = 박병국 ▲감독 = 박경수 ▲선수 = 권재경, 박진권, 채기호, 한 성현, 황정우, 이승환, 박지환, 권영민, 김봉주, 신상철, 김경태, 김태환, 김태 호, 김준혁, 김현근, 박휘성, 신유대, 김경엽

1942년 창단한 전통의 옛 대구상고



대구상원고

1942년 야구부 창단 이래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을 배출한 고교 야구의 명문 고등학교다. 투수진과 탄탄한 내야진이 돋보인다. 집중력 있는 고른 타격도 장점이다. ▲대표 = 이상호 ▲감독 = 박영진 ▲선수 = 윤성민, 권민규, 정영민, 이성훈, 이호준, 박효일, 리준성, 배정원, 김민찬, 조원준, 서영국, 박희량, 김민수, 황석호, 이재우, 김승주, 김태환, 박찬수, 신정민, 조영호, 강병수, 이 인호, 조영관, 김현욱, 조원태, 배진호, 박지규, 안성재, 최근구, 김태희

‘새로운 야구 흥풍’ 기치 재도약 노력



부천고

1985년 창단 이후 94년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야구 명문으로 입지를 굳혔으나 이후 침체기에 머물고 있다. 올해 ‘새로운 야구 흥풍’이란 슬로건을 내건 부천고는 이 번 대회 상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대표자 = 신종철 ▲감독 = 정상훈 ▲선수 = 손동욱, 장영석, 김덕길, 나준기, 서경오, 이 영웅, 김남수, 김승문, 서동호, 장현진, 김광호, 김진우, 민정우, 박인규, 임성연, 김현, 진민호, 한태현, 김태환, 송창민, 정호 원, 주수빈, 정재욱, 김호영, 정우혁, 성영민, 신원섭, 윤양수

1924년 창단 된 전통의 야구 명문



공주고

1924년에 창단된 오랜 역사의 공주고는 제11회 대통령배 우승을 시작으로 제71회 전국체전 우승 이후 사기가 높아졌다. 투수 중심적인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에이스 안상민과 중견수 김찬호를 중심으로 하는 투·타의 조화로 상위권 진입에 나선다. ▲대표자 = 임재우 ▲감독 = 이종호 ▲선수 = 김찬호, 조득우, 장성민, 고봉찬, 안승민, 이상팔, 장익호, 김지원, 김철중, 최동욱, 이종원, 유현진, 이종호, 고세진, 박철우, 조 상현, 양정호, 김기성, 한수빈, 김철민, 최재우, 최동익, 김동훈

‘타격왕’ 안치홍 등 중심 타선 기대



서울고

1973년 창단된 서울고는 올해 대통령배 와 황금사자기에서 4강에 입상하면서 다크 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황금 사자기 타격왕 안치홍을 필두로 한 박건우·김경오·신효철 의 타력을 바탕으로 우승을 노리고 있다. ▲대표 = 박희승 ▲감독 = 홍상욱 ▲선수 = 안치홍, 유원석, 김경오, 정기성, 박건우, 신효철, 안성무, 나광주, 전인환, 최성민, 허정민, 임정우, 권민욱, 이민재, 최우진, 김동민, 박예환, 이창하, 최현철, 이인복, 박주영, 안 동훈, 김재근, 조승현, 문재현, 이현술, 유갑남, 강성호, 김지훈, 김지원

에이스 성영훈 앞세워 정상 도전



덕수고

1980년 창단한 덕수고는 고교정상급의 투수력과 뛰어난 기동력으로 공격적인 야 구를 구사한다. 올해 초특급 선수 성영훈을 앞세워 황금사자기 준우승, 대통령배에서 우승하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 = 이인원 ▲감독 = 정운진 ▲선수 = 김현석, 서두원, 성영훈, 손정욱, 박찬규, 이영 준, 김진영, 이규섭, 이상복, 한승혁, 이민욱, 문 기화, 권정웅, 김선형, 박민성, 배상현, 양종민, 유영현, 이인형, 서민영, 윤 영수, 임신호, 송재현, 민정후, 이현민, 김경도, 나경민, 양희석, 신철원

1977년 재창단...안정된 수비 강점



전주고

1977년 재창단된 전주고는 2001년 무등 기 대회 준우승으로 부활을 알렸고, 2006년 전국체전 우승이후 사기가 높아졌다. 투수 최정성·은승진·오성균의 활약에 기대를 걸 고 있으며, 클럽업 트리오의 화력도 막강하 다. 내·외야 수비가 안정된 것도 장점이다. ▲대표 = 지영호 ▲감독 = 박성기 ▲선수 = 고재권, 최정성, 오성균, 은승진, 박진우, 이 회재, 조은별, 임태환, 강성민, 박정준, 강신철, 김광연, 김철민, 김찬승, 차승 훈, 최진호, 강명규, 김동훈, 강준, 양호철, 박철원, 강승현

기동력 앞세운 공격야구로 승부



동산고

1945년 창단된 동산고는 3학년생을 중심으 로 하는 뛰어난 조직력으로 무등기 4강에 도전한다. 빠른 발을 이용한 기동력, 최지 만·정기완·한승민의 막강 클럽업 트리오의 화력을 통해 공격야구를 구사한다. ▲대표자 = 김건수 ▲감독 = 김재문 ▲선수 = 고덕화, 홍성현, 안재홍, 김경태, 김대웅, 유성 근, 전준영, 백화복, 심형섭, 정기완, 신세진, 최지 만, 이동훈, 김재현, 최호준, 김병희, 김두진, 임진영, 민찬희, 이정은, 이인환, 박병우, 민대기, 정진현, 신상환, 한승민, 장호석, 천상용, 박찬수

기동력·든든한 수비력 장점



유신고

1995년부터 팀을 이끌고 있는 이성열 감독의 지도 아래 정수빈·윤건의 투수력과 정 수빈·송종혁·박혁 등의 클럽업 트리오, 신 정윤·송종혁 등의 빠른 발과 고른 수비가 장점이다. 탄탄한 내야진과 안정된 투타를 바탕으로 무등기 정상에 도전한다. ▲대표자 = 전두만 ▲감독 = 이성열 ▲선수 = 정수빈, 윤건, 임태환, 신정윤, 송종혁, 박범 열, 김기수, 김학성, 배승준, 김준영, 박혁, 김병주, 오유민, 김창섭, 김상혁, 백하슬라, 김관용, 박광현, 박현민, 고상우, 김문고, 강영호, 장다윤, 윤재규

중심타선 파괴력 돋보인 전통 강호



동성고

1956년 창단한 야구부는 2000년 이후 전 성기를 맞아 2007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준우승, 2008년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 4강에 올랐다. 풍부한 투수력과 중심타선의 파괴력이 장점이다. ▲대표 = 윤민석 ▲감독 = 윤영국 ▲선수 = 송단비, 조우상, 최재영, 신희섭, 고영환, 김준모, 박선용, 유경국, 윤병운, 이종우, 이영기, 김혁, 임익현, 문동욱, 김승보, 배동준, 고영우, 김찬양, 문진재, 심의정, 윤지은, 채 수웅, 김유진, 김민재, 최승원, 문선재, 윤희훈, 박건호, 강시화, 김창민

작년 챔피언 “올해도 지킨다”



장충고

45년의 야구 역사를 자랑하는 장충고는 지난해 무등기 정상에 오른 저력을 바탕으 로 올해도 우승을 노리고 있다. 김진철·이 흥우·정성민으로 이루어진 중심타선 등 공격력이 좋고, 마운드도 안정됐다. ▲대표자 = 오양환 ▲감독 = 유영준 ▲선수 = 강운규, 강민규, 안효진, 송재훈, 강승훈, 고재환, 김윤식, 박준혁, 김현용, 최영수, 윤영삼, 최용일, 배한준, 최진웅, 정다현, 이홍규, 정성민, 이지희, 김진철, 김건호, 최용준, 신 민기, 성현기, 김준환, 김경환, 강성진, 최선호, 민원홍, 사공영, 정도원

두차례 해체 아픔 딛고 새 활력 찾아



마산고

1942년에 창단된 마산고는 2차례 팀이 해체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8년에 다시 창단되었다. 지난해 광주 전국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상승세다. 내·외야의 탄 탄한 수비와 칠백 마운드, 클럽업 트리오의 정교한 타격이 장점이다. ▲대표자 = 김진호 ▲감독 = 이호근 ▲선수 = 박상혁, 최재원, 김태우, 남석우, 박근탁, 정 진형, 정성민, 김원형, 문선엽, 황동진, 오승환, 송승환, 황건현, 전성우, 김지 훈, 김동진, 윤태웅, 한솔기, 권용민, 김동환, 김민재, 김대우, 김성웅

옛 동대문상고...조직력 돋보여



청원고

1962년 동대문상고라는 이름으로 야구부 를 창단한 명실상부한 야구의 명문이다. 청 원고는 뛰어난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등기 상위 입상에 도전한다. ▲대표자 = 김용우 ▲감독 = 최원수 ▲선수 = 조근중, 허성주, 장성희, 송석훈, 삼규범, 박상 욱, 김무경, 정재훈, 신준희, 김도연, 박세민, 이진 영, 김호영, 구승민, 김정수, 박선호, 오승택, 김진 만, 정두호, 조우근, 우영삼, 김현준, 김태길, 정인 재, 박태일, 정유민, 최준규, 지영관, 조현수, 허대영

창단 이후 최강 전력 상위권 목표



구미전자고

2003년 야구부를 창단한 구미전자공고는 2006년 제13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김도 산·장웅·이희용의 클럽업 트리오에 김봉 규·김동빈의 고른 타선이 공격력을 힘을 더 한다. 올해 야구부 창단 이후 최고의 전력을 갖추고 이번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노린다. ▲대표 = 박성권 ▲감독 = 권정화 ▲선수 = 김봉규, 서성민, 이국, 오주환, 김우택, 김준규, 오수환, 배하늘, 류호영, 정웅, 이 희용, 이지환, 김동민, 강정호, 박해인, 홍준표, 김준수, 남상철, 김도산, 김종근

1973년 창단 전국대회 우승 6회



진흥고

1973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 우승 6회의 성적을 올린 전통의 야구팀으로 이번 대회 에서도 정상에 도전한다. 폭 넓은 투수력과 정형식·박상현·백이진·최천만·원강산으 로 이어지는 공격력이 좋다. ▲대표자 = 이종호 ▲감독 = 최재영 ▲선수 = 백이진, 김덕문, 고영창, 유영준, 강호영, 김윤태, 정형식, 박상현, 최천만, 원강산, 문준성, 이승현, 손경진, 임기준, 김정훈, 권정주, 천승현, 임병훈, 고현욱, 양승철, 고재환, 박 준표, 김지용, 김도현, 이주호, 이태호, 엄석준, 장현진, 최수빈, 이창욱

1학년 중심 패기의 야구 펼친다



부경고

1945년 개교와 함께 팀을 창단한 부경고 는 전국대회 우승 8회의 역사와 전통을 바 탕으로 부산지역 고교야구의 한 축을 이루 고 있다. 1년생 투수 김동준과 홍승무의 기 량이 날로 발전하는 등 1학년의 패기를 바 탕으로 상위권 진입에 도전한다. 유격수 박 진우가 이끄는 탄탄한 내야 수비와 최봉천· 최진영·심동민의 중심 타선 움직임이 좋다. ▲대표자 = 남경필 ▲감독 = 권두조 ▲선수 = 고형균, 박근열, 박진우, 최봉천, 최진영, 강동수, 김동준, 김재우, 김정운, 김현기, 심동민, 홍승무

포수 김재윤 강한 어깨 일품



휘문고

1907년에 창단된 유수한 역사의 휘문고 는 각종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등 야구명문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조승수·허준혁·백 경도도 이어지는 안정된 마운드, 포수 김재 윤의 리드와 강한 어깨가 일품이다. ▲대표자 = 김진규 ▲감독 = 전형도 ▲선수 = 박종현, 조승수, 허준혁, 백경도, 김재윤, 송 일출, 한태웅, 손태완, 한승훈, 박산하, 한태신, 박정우, 전수환, 김동현, 이광원, 박성민, 박태원, 이혁기, 김윤재, 임찬규, 조 응성, 박민우, 조용화, 박휘연, 조장현, 윤정호, 정승민, 강승진